현장과 시각

FISU 광주실사가 남긴 것

정후식
사회1부 부장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광주 현지 실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실사단은 5일 환송조찬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닷새간의 실사를 끝내고 출국길에 오른다.

이번 실사는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자의 날(1일)과 주말·휴일(3·4일), 어린이날(5일) 등 공휴일이 겹쳐 환영분위기가 가라앉지나 않을까 우려됐지만 시민·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이를 깨끗이 잠재웠다.

2일 밤 '유치기원 시민축제'가 열린 금남로에서는 3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2002 월드컵 4강 신화때 응원 열기에 버금가는 환호와 열정으로 실사단을 맞았다. 실사단이 경기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3일 화정동 빛고을체육관에서 진행된 한·일 남자국가대표팀 핸드볼경기에도 1천여명의 응원단이 발디딜 틈없이 꽉 들어찼다. 경기를 지켜보던 한 체육계 관계자가 "핸드볼이 이처럼 인기 있는 종목인 줄은 처음 알았다"고 귀띔할 정도였다.

나흘간의 실사 과정을 지켜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관계자는 "인프라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은 후보 도시간 큰 차별성이 없다고 볼 때 중요한 것은 환영 분위기"라며 "광주의 경우 공항 입국때는 물론 실사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이 뜨거운 환영 열기를 보여줘 위원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공이었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실사위원들이 던진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터키 집행위원인 케말 타머 위원은 "광주 시민의 상상력에는 끝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 광주는 하계U대회 뿐만 아니라 올림픽 유치에도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두 차례나 극찬했다. 스테판 버그 단장은 "광주는 충분히 준비돼 있는 도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팀원들끼리도 '아마 우리가 (142만) 광주 시민들을 모두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면서 "U대회 같은 대형 행사를 개최하려면 이런 열망을 가져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들도 '놀랍다' '경이롭다' '감동적이다'라는 표현을 앞다퉈 구사했다.

하지만 자족(自足)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실사위원들의 이런 언급은 뜨거운 환대에 대한 감사의 '립 서비스' 정도로 여기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버그 단장은 지난달 17~21일 스페인 비고에 대한 실사때도 시민들의 환영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금이 그 순간이다"라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개최지 결정을 위한 FISU 집행위원회 총회(31일)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종 프레젠테이션과 투표에 대비해 전방위 외교전과 함께 치밀한 득표전략이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who@kwangju.co.kr

민주 당권 경쟁 양강 구도 가시화

정세균, 당내 세굳히기 추미애, 당밖 민심잡기

원내대표 김부겸·원혜영·이강래 경쟁

통합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놓고 정세균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간 양강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 정 의원은 세력 우위를 발판으로 당내에서 세몰이에 나서고 있는 반면, 추 당선자는 당의 변화 요구라는 명분을 무기로 여의도 밖에서 표밭을 갈고 있다.

4선 고지에 오른 전북 출신 정 의원은 최근 각 계파 의원들과 접촉을 넓혀가는 가운데 옛 열린우리당 출신 중진과 일부 386 등 당내 다수파 그룹을 등에 업고 조직 불리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중립 성향으로 당내 화합적 결합을 이뤄낼 통합적 리더십의 적임자임을 부각시키면서 조직적 우위를 십분 활용, 당내 대세론을 확산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4년의 공백 끝에 재기에 성공, 3선에 오른 추 전 의원은 7일 고향인 대구를 시작으로 내주 부산, 광주 등을 방문하는 등 전국 투어에 돌입, 사실상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선명 야당'을 기치로 국민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 외곽으로부터 '추풍'(秋風)을 확산시키겠다는 것.

당장 지난달 29, 30일 CBS-리얼미터가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추 전 의원은 23.0%의 지지율로 천정배(10.2%), 정세균(7.3%) 의원을 더불 스코어 차이로 앞섰다.

그러나 실질적인 당권은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대의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여론조사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양강 구도의 당권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당권 도전설이 나오는 다른 인사들도 탐색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막판 장고에 들어갔으며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구체적 비전과 정책 대안 다듬기에 들어갔다.

당 대표직과 국회 부의장직 사이에서 고심 중인 문희상 의원과 원외의 정균환 최고위원, 권토중래를 노리는 정대철 고문 등도 원내외 인사들과의 활발한 스킨십을 통해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는 김부겸, 원혜영, 이강래 의원 등 3강 구도로 가닥 지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주자로 꼽혔던 이낙연 의원은 지난 1일 출마의사를 접었고 최인기 의원도 최고위원 경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오는 7월 6일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구성은 물론 당권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꼭 이기고 말거야"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이 3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화이트 리버 주립공원 잔디밭에서 유세중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무대위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파견땐 한국 민간시설 공격"

탈레반 대변인 협박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2일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경찰을 보낼 경우 카불의 한국 관련 민간시설까지 공격하겠다고 협박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프간 카불의 한 소식통은 2일 오전(현지시간) 아마디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한국이 아프간에 경찰이나 군을 보낼 경우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군경이 우리 땅에 발을 들여놓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디는 "한국이 경찰을 보낼 경우 민간인, 외교관 할 것 없이 한국인은 아프간에서 안전하지 못할 것이며 특히 카불에 있는 모든 한국 관련 건물과 민간 단체를 공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한국 정부가 경찰 파견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면서 "아프간에 다시 군경이나 선교사를 보낸다면 지난해와 같은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외교 당국자는 이에 대해 "노 코멘트"라며 탈레반 측 경고에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작년 말 아프간에 파견했던 동의·다산부대를 철수시켰던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아프간의 치안안정을 위해 현지 경찰을 훈련시킬 경찰요원 10명 안팎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강부자 내각·수석' 후유증

청와대 비서관 재산공개 앞두고 유언비어 난무

청와대 1급 비서관들의 재산공개(7일)를 앞두고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모 비서관이 100억대를 축적했다"는 얘기가 흘러 다니고 있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등 매터도성 유언비어가 도처에서 나돌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치고 빠지기식'의 견제용 소문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 같은 현상은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 공개 당시 '강부자 내각', '버블세븐 수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후유증의 일단이기도 하다.

1급 비서관들마저 부자들로 드러날 경우 '3진 아웃'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청와대 내에서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1급 비서관 30여 명의 평균 재산액은 15억여원. 최고 재산가는 100억원대 안팎이고, 40억-50억원대 재산가도 몇명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족 중에 이중국적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00평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소문의 해당 비서관은 재산이 10억원에 머무는 데다 빚을 지고 있어 실 재산은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100억원대 재산가로 입방아에 오른 두 비서관은 실제로는 20억여원, 3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한 비서관은 "집도 없는 데 무슨 100억원이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소문이 횡행하자 1급 비서관들을 상대로 철저한 사전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서관은 "재산공개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걱정이 없지 않다"라며 "지금 분위기는 재산이 많다면 무조건 두들겨 맞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노벨상 공작 주장은 음모"

최경환 DJ 공보비서관

김대중(DJ) 전 대통령측은 4일 국민의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공작'을 벌였다는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씨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음모"라고 반박했다.

DJ측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씨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무지 또는 음모의 소치"라며 "노벨상이 금전이나 로비, 공작으로 받을 수 있는 상이라면 그 것은 노벨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벨상 수상 이후 8년이 되도록 정치적 음모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그 배후와 책임을 추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미 핵 신고서 협의 끝내기 수순

북·미 간 핵 신고서 협의가 끝내기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른바 '다음 단계'에 대한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현재 북핵 외교가의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북한과 미국은 조만간 신고서 협의를 끝내고 합의된 내용을 공개한 뒤 북한이 핵 신고서를 의장국 중국에 제출하는 시점에 맞물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미국 측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이 제출한 공식 신고서 내용을 6자회담 참가국들에 회람, 마지막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수주일 내에 6자회담을 개최"(크리스토퍼 힐 차관보)하는 쪽으로 국면을 조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전문가들은 일단 지난 6개월간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핵 신고의 고비는 이제 넘어가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인(動因)은 북한과 미국 수뇌부의 확고한 '협상의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측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주 성 김 미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 당시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까지 나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 우리가 뭘 더 해줘야 하겠느냐"는 말까지 해가며 적극성을 과시했다는게 정부 소식통의 전언이다. /연합뉴스